



# 눈길 끄는 색·차별화된 맛...이색 버섯 4품종, 시장에 새바람

- 새로 개발한 ‘초코벨로’ 수량성과 저장성 뛰어난 갈색 양송이
- ‘설원’·‘아람’·‘백마루24’, 크기·기능성·맛 차별화로 시장성 높여
- 현장 보급 확대로 농가 소득 증가, 이색 버섯 산업 활성화 기대

농촌진흥청(청장 이승돈)은 새로 개발한 갈색 양송이 ‘초코벨로’를 비롯해 이미 개발한 ‘설원’, ‘아람’, ‘백마루24’ 등 이색 버섯 4품종의 현장 보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.

이들 품종은 색, 크기, 식감 등에서 기존 품종과 차별화된 특성을 보여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고 농가 소득 증가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.



‘초코벨로’



‘설원’



‘아람’



‘백마루24’

△단단한 갈색 양송이 ‘초코벨로’= ‘초코벨로’는 국내에서는 드물게 유통되는 갈색 양송이\*로 초콜릿처럼 진한 갈색을 띤다. 갓이 크고 대가 짧으며 식감이 좋아 다양한 식재료로 활용성이 높다. 육질이 단단해 유통과 저장에도 유리하다. 재배 면에서는 대조 품종보다 수확 시기가 1.5일 정도 빠르고, 무게는 33% 더 무거우며, 수량은 42% 더 높다.

\* 갈색 양송이는 풍부한 식감 덕분에 서양에서는 스테이크, 피자, 햄버거 등의 다양한 식재료로 각광받고 있음

△큰느타리보다 3배 큰 ‘설원’= 기존 큰느타리(새송이)보다 갓이 3~4배

크고, 대는 3배 이상 굵으며, 식감이 부드럽다. 수확량은 큰느타리와 비슷하지만, 시장가는 2배 정도 높게 형성돼 있다.


△기능성분 풍부한 황금 팽이 ‘아람’= 황금색을 띠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. 일반 흰색 팽이보다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3배 이상 많고, 신경안정 성분인 가바(GABA) 함량은 2~3배 더 많다.

△식이섬유 풍부한 흰색만가닥버섯 ‘백마루24’= 장 건강을 돕고 포만감 유지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 함량이 34.4%로, 기존 갈색(26.7%)이나 흰색 품종(29.7%)보다 높다. 버섯 재배 속도가 고르고, 수확할 때 크기와 모양 편차가 적다. 특히 균사 활력이 뛰어나 기존 상용 품종(80~90일)보다 약 10일 빠른 70일 만에 버섯을 배양해 생산 비용과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. 수확량도 기존 품종보다 약 10% 많다.

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15만 2,671톤의 버섯이 551헥타르(ha) 면적에서 생산되는데, 느타리, 큰느타리, 팽이버섯, 이들 3품목이 전체의 약 78%를 차지하고 있다. 농촌진흥청은 이색 품종 보급을 확대하고 농가의 품종 도입 부담을 낮추고자 유통업체, 생산자,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, 신 품종 현장 기술지원, 요리법 보급 등에 힘쓰고 있다.

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노형준 과장은 “이색 버섯 4품종은 형태, 기능성, 맛 등에서 기존 품종과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.”라며, “소비경향 변화에 부합하는 우수 품종을 빠르게 보급해 버섯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### 붙임. 이색 버섯 품종 특성

담당 부서	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	책임자	과 장	노형준 (043-871-5700)
		담당자	연구사	우성이 (043-871-5714)
				

□ 품종 특성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육성년도: 2025</li> <li>○ 이름의 의미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초콜릿처럼 진한 갈색을 지닌 포토벨로(갈색 양송이) 전용 품종</li> </ul> </li> <li>○ 품종특성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갓을 크게 키운 버섯으로, 갓이 넓고 대 길이가 짧은 것이 특징</li> <li>- 수확 시기가 대조 품종보다 1.5일 정도 빠르고 저장성 우수함</li> </ul> </li> <li>○ 갈색 양송이 농가 대상 보급 중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육성년도: 2015</li> <li>○ 이름의 의미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눈처럼 부드럽고 감칠맛이 살아있는 버섯</li> </ul> </li> <li>○ 품종특성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생육 중 저온처리가 필요 없으며, 재배기간이 약 50일로 짧음</li> <li>- 갓이 크고 연백색이며 식감이 부드러움</li> <li>- 수확량이 큰느타리와 비슷하나 판매가격은 약 2배</li> </ul> </li> <li>○ 전용실시로 기술이전되어, 대형마트 판매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육성년도 : 2018</li> <li>○ 이름의 의미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황금의 원소기호인 Au를 우리말로 옮기면서 명사형으로 나타낸 것(Auram)</li> </ul> </li> <li>○ 품종특성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버섯이 황금색으로 갓이 작고 대가 굵어 식감이 좋고 폴리페놀(항산화), GABA(신경안정) 등 기능이 흰색팽이버섯보다 우수함</li> </ul> </li> <li>○ '황금아삭팽이'로 온라인쇼핑몰, 오프라인 대형 매장과 생산지인 충북, 경북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등에서 판매 중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육성년도: 2024</li> <li>○ 이름의 의미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흰색을 뜻하는 '백(白)'과 하늘의 순우리말 '마루'와 개발 연도(2024년)와 '24시 편의점'처럼 언제나 고르게 생산한다는 뜻</li> </ul> </li> <li>○ 품종특성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실체의 크기와 모양 편차가 적어 상품성이 높음</li> <li>- 군사 활력이 뛰어나 기존 상용 품종(80~90일)보다 약 10일 빠른 70일 만에 배양됨</li> <li>- 기존 흰색보다 수확량이 약 10% 많음</li> </ul> </li> <li>○ 양평, 홍천 계약재배 판매</li> </ul>